

2018년 서울시 7급 회계학 문제 및 해설 <공단기 김성수교수>

1. (주)서울의 현재 당좌비율은 100%이고, 매출채권회전율은 10회이다. <보기>의 거래를 모두 반영할 경우 당좌비율과 매출채권회전율의 변동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-----보기-----

- 은행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₩1,000,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.
- 재고자산 ₩2,000,000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.
- 매출채권 ₩4,000,000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.

	당좌비율	매출채권회전율
①	증가	증가
②	증가	감소
③	감소	증가
④	감소	감소

1. ③

(차) 이자비용 ₩1,000,000 (대) 현금 ₩1,000,000
 (차) 재고자산 ₩2,000,000 (대) 현금 ₩2,000,000
 (차) 현금 ₩4,000,000 (대) 매출채권 ₩4,000,000

∴ 당좌비율 감소, 매출채권회전율 증가

2. (주)서울은 액면금액이 ₩100,000, 표시이자율이 연 10%(1년에 1회 이자지급)인 사채를 이자지급일에 현금 ₩113,000을 지급하고 조기상환하였다. 이때 사채상환손실이 ₩8,000이었다면, 상환시점의 사채할인발행차금은?

- ① ₩8,000 ② ₩5,000 ③ ₩3,000 ④ ₩2,000

2. ②

(1) 사채상환손실 ₩8,000 = ₩95,000(장부금액) - ₩103,000(상환금액)

(2) 상환금액 : ₩113,000 - ₩100,000 × 10% = ₩103,000

(3) 사채할인발행차금 : ₩100,000 - ₩95,000(장부금액) = ₩5,000

3. (주)서울은 <보기>의 3가지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다. (주)서울은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고 있다. 20×2년 (주)서울의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손익은?

구분	취득원가	20×1년 말 공정가치	20×2년 말 공정가치
자산1	₩300	₩390	₩370
자산2	₩350	₩290	₩275
자산3	₩310	₩385	₩390

① ₩105 이익 ② ₩80 이익 ③ ₩35 손실 ④ ₩30 손실

3. ④

(1) 자산1 : ₩370-₩390=(-)₩20

(2) 자산2 : ₩275-₩290=(-)₩15

(3) 자산3 : ₩390-₩385=₩5

(4) 20×2년 손익 : (1)+(2)+(3)=(-)₩30

4.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중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보장시키는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에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.

② 보강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이다. 때로는 하나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 다른 질적 특성의 극대화를 위해 감소되어야 할 수도 있다.

③ 중립적 서술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충실한 표현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.

④ 보강적 질적 특성은 정보가 목적적합하지 않거나 충실하게 표현되지 않으면,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그 정보를 유용하게 할 수 없다.

4. ③

검증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충실한 표현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.

5. (주)서울은 토지를 취득한 후 재평가모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다. 토지의 취득원가와 각 회기 말 토지의 공정가치는 <보기>와 같다. 토지의 재평가와 관련하여 (주)서울이 20×3년에 인식할 당기손실과 총포괄손실은? (단,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.)

구분	취득원가	각 회계기간 말 공정가치		
	20×1년 초	20×1년 말	20×2년 말	20×3년 말
토지	₩2,500	₩3,000	₩2,700	₩2,300

① 당기손실 ₩400 총포괄손실 ₩0

② 당기손실 ₩300 총포괄손실 ₩100

③ 당기손실 ₩300 총포괄손실 ₩400

④ 당기손실 ₩200 총포괄손실 ₩400

5. ④

(1) 총포괄손실 : ₩2,300-₩2,700=(-)₩400

(2) 당기손실 : ₩2,500-₩2,300=(-)₩200

6. <보기>는 (주)서울의 연구, 개발과 관련된 자료이다. <보기>와 관련하여 (주)서울이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연구비는? (단, 개발비로 분류되는 지출의 경우 개발비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한다.)

-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의 지출 ₩10,000
-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, 장치, 제품, 공정,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 안을 제안, 설계, 평가, 최종 선택하는 활동의 지출 ₩10,000
- 생산이나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, 제작, 시험하는 활동의 지출 ₩10,000
- 상업적 생산 목적으로 실현가능한 경제적 규모가 아닌 시험공정을 설계, 건설, 가동하는 활동의 지출 ₩10,000
-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 ₩10,000

① ₩20,000

② ₩30,000

③ ₩40,000

④ ₩50,000

6. ②

(1)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의 지출 : ₩10,000

(2)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 : ₩10,000

(3)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, 장치, 제품, 공정,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 안을 제안, 설계, 평가, 최종 선택하는 활동의 지출 ₩10,000

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연구비 : (1)+(2)+(3)=₩30,000

7. (주)서울은 20×1년과 20×2년에 당기순이익으로 각각 ₩1,000,000과 ₩2,000,000을 보고하였다. 그러나 20×1년과 20×2년의 당기순이익에서 <보기>와 같은 중요한 오류가 포함되어 있었다. 이러한 오류가 20×1년과 20×2년의 당기순이익에 미친 영향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구분	20×1년	20×2년
감가상각비	₩100,000 과대계상	₩200,000 과대계상
기말선급보험료	₩30,000 과소계상	₩20,000 과소계상
기말미지급임차료	₩10,000 과대계상	₩40,000 과대계상
기말채고자산	₩70,000 과소계상	₩50,000 과소계상

20×1년

20×2년

① ₩210,000 과대계상

₩200,000 과대계상

② ₩210,000 과대계상

₩200,000 과소계상

③ ₩210,000 과소계상

₩200,000 과대계상

④ ₩210,000 과소계상

₩200,000 과소계상

7. ④

구분	20×1년	20×2년
감가상각비	₩100,000 과소	₩200,000 과소
기말선급보험료	₩30,000 과소	₩30,000 과대 ₩20,000 과소
기말미지급임차료	₩10,000 과소	₩10,000 과대 ₩40,000 과소
기말재고자산	₩70,000 과소	₩70,000 과대 ₩50,000 과소
당기순이익	₩210,000 과소	₩200,000 과소

8. (주)서울은 사과를 가공해서 사과주스원액과 사과비누원액을 생산한 후, 추가가공을 거쳐 사과주스와 사과비누를 생산하고 있다. 20×1년 1월 사과 1,000Kg을 투입(분리점까지 발생 원가:₩3,000,000)하여 사과주스원액 500L와 사과비누원액 500L가 생산되었다. 사과주스원액 500L는 추가원가 ₩500,000으로 사과주스 2,000개가 생산되었으며, 사과비누원액 500L는 추가원가 ₩700,000으로 사과비누 2,000개가 생산되었다. 제품별 판매가격은 <보기>와 같다.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은 없으며 생산된 제품은 모두 판매되었다. 분리점에서의 판매 가치법(sales value at split-off method)을 이용하여 결합원가를 배분할 경우 사과주스의 매출총이익은?

-제품별 판매가격-	
사과주스원액 : L당 ₩1,000	비누원액 : L당 ₩2,000
사과주스 : 개당 ₩2,000	비누 : 개당 ₩3,000

- ① ₩1,200,000
- ② ₩1,500,000
- ③ ₩2,000,000
- ④ ₩2,500,000

8. ④

- (1) 사과주스 매출액 : $2,000\text{개} \times ₩2,000 = ₩4,000,000$
- (2) 분리점에서 판매가치
 - 1) 사과주스 : $500\text{L} \times ₩1,000 = ₩500,000$
 - 2) 사과비누 : $500\text{L} \times ₩2,000 = ₩1,000,000$
- (3) 사과주스의 결합원가배부액 : $₩3,000,000 \times ₩500,000 / ₩1,500,000 = ₩1,000,000$
- (4) 사과주스 매출원가 : $₩1,000,000(3) + ₩500,000 = ₩1,500,000$
- (5) 매출총이익 : $₩4,000,000(1) - ₩1,500,000(4) = ₩2,500,000$

9. 종업원급여에 대한 내용 중 퇴직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- ① 확정급여제도에서 기업이 보험수리적위험(급여가 예상에 미치지 못할 위험)과 투자위험(투자한 자산이 예상급여액을 지급하는 데 충분하지 못할 위험)을 실질적으로 부담한다.
- ②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처럼 동일 지배 아래에 있는 기업들이 위험을 공유하는 확정급여제도는 복수사용자제도에 해당한다.
- ③ 확정급여제도에서는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채무가 생기고, 그 급여가 미래의 근무용역 제공을 조건으로 지급되는지와 관계없이, 즉 급여가 가득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생긴다.
- ④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(자산)의 재측정요소는 후속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며,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금액은 자본 내에서 대체할 수 없다.

9. ③

- ① 확정급여제도에서 종업원이 보험수리적위험(급여가 예상에 미치지 못할 위험)과 투자위험(투자한 자산이 예상급여액을 지급하는 데 충분하지 못할 위험)을 실질적으로 부담한다.
- ② 복수사용자제도는 다수의 기업이 확정급여형 연금에 공동으로 가입하는 제도이다.
- ④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(자산)의 재측정요소는 후속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다.

10. <보기>는 (주)서울의 기초 및 기말의 자산, 부채 현황이다. (주)서울은 당기 중에 ₩1,000,000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, ₩500,000의 현금배당과 10%의 주식배당을 완료하였다. (주)서울의 당기순이익은? (단, 당기 중 해당내용 외의 자본거래는 없었으며, 기타 포괄손익은 발생하지 않는다.)

	기초	기말
자산	₩35,000,000	₩39,000,000
부채	₩20,000,000	₩22,000,000

- ① ₩1,500,000
- ② ₩3,000,000
- ③ ₩4,000,000
- ④ ₩5,000,000

10. ①

- (1) 기초자본 : ₩35,000,000-₩20,000,000=₩15,000,000
- (2) 기말자본 : ₩39,000,000-₩22,000,000=₩17,000,000
- (3) 자본증가 : (2)-(1)=₩2,000,000
- (4) 자본증가 : ₩1,000,000-₩500,000=₩500,000
- (5) 당기순이익 : (3)-(4)=₩1,500,000

11. (주)서울은 20×1년 7월 1일 기계장치를 ₩120,000에 취득(내용연수 4년, 잔존가치 ₩20,000, 연수합계법 상각)하면서 정부로부터 자산관련보조금 ₩40,000을 수령하였다. (주)서울이 수령한 보조금을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면 20×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? (단, 기계장치는 원가법을 적용하고, 손상차손은 없으며, 감가상각비는 월 할 계산한다.)

- ① ₩68,000
- ② ₩88,000
- ③ ₩92,000
- ④ ₩100,000

11. ①

(1) 수정된 취득원가 : ₩120,000-₩40,000=₩80,000

(2) 20×1년 말 감가상각비의 합계 : (₩80,000-₩20,000)×4/10×6/12=₩12,000

(3) 20×1년 말 기계장치 장부금액 : (1)-(2)=₩68,000

12. 수익의 인식을 수반하지 않는 사건에 해당하는 것은?

- ① 상품을 도착지 인도기준으로 판매하기로 하고 운송선박에 선적하였다.
- ② 상품을 거래처에 위탁하여 판매하였다.
- ③ 이자부 채권을 매입하고 3개월이 지났으나 이자는 수취하지 못하였다.
- ④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금으로 거래처에 대한 매입채무를 상계하였다.

12. ①

도착지 인도기준은 고객에게 도착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.

13.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(주)서울은 20×1년 1월 1일에 건물을 ₩10,000,000에 취득(정액법 상각, 내용연수 10년, 잔존가치 없음)하여 사용하고 있다. 20×4년 12월 31일 동 건물에 손상이 발생하였으며, 이때 건물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는 각각 ₩3,000,000과 ₩3,600,000이었다. 반면 20×5년 12월 31일에는 동 건물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가 각각 ₩4,800,000과 ₩5,500,000으로 회복되어 손상차손환입이 발생하였다. (주)서울이 20×5년도에 인식할 손상차손환입액은?

- ① ₩1,800,000 ② ₩2,000,000 ③ ₩2,300,000 ④ ₩2,500,000

13. ②

(1) 20×5년 감가상각비 : ₩3,600,000÷6년=₩600,000

(2) 20×5년 환입전 장부금액 : ₩3,600,000-₩600,000=₩3,000,000

(3) 손상환입 한도 : min(₩5,500,000, ₩10,000,000-10,000,000×5/10)=₩5,000,000

(4) 20×5년 손상차손환입액 : (3)-(2)=₩2,000,000

14.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상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는 수입은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이다.
- ② 납입고지서를 발급하는 수시수입은 그 납입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이다.
- ③ 실비보상 · 급여 · 여비 · 수수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지급을 하여야 할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세출이다.
- ④ 사용료 · 보관료 · 전기료 또는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것은 지급청구를 받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세출이다.

14. ②

부과고지방식의 지방세수익은 징수결의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. 국가회계의 경우에도 고지하는 때 수익으로 인식하듯 일반회계에서의 외상매출과 유사한 개념으로 발생주의에 따라 재정운영표를 작성한다.

15. <보기>는 (주)서울의 20×1년 법인세와 관련된 거래내용이다. (주)서울의 20×1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₩1,000,000이며, 당기 과세소득에 적용될 법인세율은 10%이다. 20×1년 포괄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은? (단, 향후 세율은 일정하며, 과세소득은 20×1년과 동일하고 전기 이월 일시적차이는 없다.)

- 20×1년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₩100,000이다.
- 20×1년 7월 1일 ₩50,000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20×1년 8월 31일 ₩100,000에 처분하였다.
- 20×1년 ₩100,000에 취득한 토지는 20×1년 12월 31일 공정가치는 ₩150,000이며 (주)서울은 유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나, 세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.

- ① ₩105,000 ② ₩110,000 ③ ₩115,000 ④ ₩120,000

15. ②

- (1) 세법상법인세 : ₩1,000,000+₩100,000+₩50,000=1,150,000×10%=₩115,000
- (2) 법인세비용 : ₩115,000(1)-₩50,000×10%(자기주식처분이익TAX)=₩110,000

16. (주)서울의 2018년 매출이 ₩18,000,000이고, 총비용은 ₩15,000,000이다. 총비용 중 고정비와 변동비의 비율은 2:3이다. (주)서울의 손익분기점이 되는 매출액은?

- ① ₩6,000,000 ② ₩9,000,000 ③ ₩12,000,000 ④ ₩15,000,000

16. ③

- (1) 변동비 : ₩15,000,000×3/5=₩9,000,000
- (2) 변동비율 : ₩9,000,000/₩18,000,000=50%
- (3) $S - 0.5S - ₩6,000,000(\text{고정비}) = ₩0$
- (4) 손익분기점 매출 : ₩12,000,000

17.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기전에 관한 규칙」에서 현금흐름표, 순자산변동표, 주식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현금자원의 변동에 관한 정보로서 자금의 원천과 사용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경상활동,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구성된다.
- ② 현금흐름표에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회계연도 중의 증가나 감소를 상계하여 순증감액으로 적는다. 다만, 거래가 잦아 총 금액이 크고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총액으로 적을 수 있다.
- ③ 현물출자로 인한 유형자산 등의 취득, 유형자산의 교환 등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거래에 대하여 주석으로 공시한다.
- ④ 순자산변동표에서 순자산의 증가사항은 전기오류수정이익, 회계기준변경으로 생긴 누적이익 등을 말하며, 순자산의 감소사항은 전기오류수정손실, 회계기준변경으로 생긴 누적손실 등을 말한다.

17. ②

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회계연도 중의 증가나 감소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총액으로 적는다. 다만, 거래가 잦아 총금액이 크고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순증감액으로 적을 수 있다.

18. (주)서울은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저가기준 선입선출 소매재고법을 사용하고 있다. <보기>의 자료를 근거로 계산한 기말재고자산의 원가는?

항목	원가	판매가
기초재고자산	₩800	₩1,000
당기매입	₩4,200	₩6,400
매입운임	₩900	
매출액		₩4,000
인상액		₩500
인상취소액		₩100
인하액		₩400
인하취소액		₩200

- ① ₩2,223
- ② ₩2,290
- ③ ₩2,700
- ④ ₩2,781

18. ③

- (1) 순인상 : ₩500-₩100=₩400
- (2) 순인하 : ₩400-₩200=₩200
- (3) 기말재고(매가) : ₩1,000+₩6,400+₩400-₩200-₩4,000=₩3,600
- (4) 원가율 : (₩4,200+₩900)/(₩6,400+₩400)=75%
- (5) 기말재고(원가) : ₩3,600×75%=₩2,700

19. <보기 1>과 <보기 2>는 (주)서울의 해외 종속회사인 S사의 20×1년 수정후시산표 및 20×1년 \$1당 원화자료이다. 기능통화인 달러화로 표시되어 있는 수정후시산표를 표시통화인 원화로 환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, S사의 포괄손익계산서상 총포괄이익은? (단, S사는 20×1년 초 설립되었으며, 설립 이후 자본거래는 없었다.)

-----보기 1-----

<20×1년 S사 수정후시산표>

과목	금액	과목	금액
자산	\$400	부채	\$170
비용	\$70	자본금	\$200
		수익	\$100
합계	₩470	합계	\$470

-----보기 2-----

<20×1년 \$1당 원화자료>

구분	환율
20×1년 초 환율	₩800
20×1년 평균환율	₩900
20×1년 말 마감환율	₩1,000

(단, 환산 시 수익·비용항목은 평균환율을, 자본항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한다.)

- ① ₩27,000 ② ₩30,000 ③ ₩50,000 ④ ₩70,000

19. ④

- (1) 기초자본 : $\$200 \times ₩800 = ₩160,000$
 (2) 기말자본 : $(\$400 - \$170) \times ₩1,000 = ₩230,000$
 (3) 총포괄이익 : (2) - (1) = ₩70,000

20. 리스에 관한 내용 중 토지와 건물을 함께 리스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토지와 건물을 함께 리스하는 경우, 최초로 인식될 토지분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면,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여 금융리스나 운용리스로 분류할 수 있다. 이 경우 건물의 경제적 내용연수를 전체 리스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로 본다.
 ② 토지와 건물을 함께 리스하는 경우, 최소리스료(선지급액 포함)는 리스약정일 현재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차권의 상대적인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각각에 배분한다.
 ③ 최소리스료가 토지와 건물에 신뢰성 있게 배분될 수 없고, 토지와 건물 모두 운용리스라는 사실이 명백하지 않다면, 토지와 건물은 하나의 금융리스로 분류한다.
 ④ 리스이용자가 토지와 건물 모두에 대한 임차권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면 토지와 건물 부분을 분리하여 측정하여야 한다.

20. ④

리스이용자가 토지와 건물 모두에 대한 임차권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면 투자부동산이라는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계상한다.